■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9〉

유기지존언(唯基地存焉)

오직 터만 남았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즈음 내가 계속하고 있는 속자치통감의 역주작업은 북송이 멸망하는 시기쯤에 와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독 죽은 해가 1126년인 사람이 많다. 그 중에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도 있고 하급직에 있던 사람도 있으며, 황실의 후궁도 있다. 어느 경우에는 부자와 형제가 같이 이 해에 죽은 경우도 있다.

생각하건대 이것들은 1126년은 북송에는 엄청난 재난이 닥친 해였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자료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해에 휘종(徽宗)은 아들 흠종(欽宗)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고 그 다음해인 1127년에 휘종과 흠종 부자(父子) 황제가 금(金)에 포로가 되어 북송이 멸망하게 되니 1126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지 짐작 되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들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송 태조 조광윤이 송을 건국하면서 200년간의 분열을 마감한 통일의 군주였다. 이리 말하는 것은 당(唐)왕조는 안록산과 사사명이 755년에 군사를 일으켜서 도읍인 장안으로 쳐들어가면서부터 명목만 유지하고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반 독립한 상태가 되었으니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 끝에 당은 멸망하고 오대십국까지 분열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조광윤이 끝냈던 것이다.

이처럼 2백년의 분열을 마감시킨 조광윤의 후예인 휘종이 겨우 160년 만에 금(金)에 포로가 되는 수난을 겪은 것이다. 자기 혼자 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속여먹었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충성을 하였든지 혹은 밤낮으로 수족같이 부리던 사람이든지 묵묵히 세금만 내어 자기를 봉양하던 백성들이든지 옥석(玉石)의 구별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때에 화(禍)를 당한 것이다.

이러한 송의 멸망이 신흥하는 금(金)을 세운 여진족의 아고달(阿古達)이 워낙 강했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오히려 나라를 텅 비게 만들자 그 빈 곳으로 여진족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청소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이 역사다. 휘종이 황제랍시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한 일은 나라를 텅 비게 만드는 일 뿐이었으니까. 어떤 짓을 했을까? 그 4년 전인 1122년에 휘종이 한 짓을 속자치통감에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 일단을 그대로 옮겨 보자.

이 해(휘종 선화4년, 1122)에 만세산(萬歲山)이 완성되었다. 1만년 동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황제 휘종은 이 만세산의 완성에 감격하여 손수 "간악기(艮嶽記)"라는 글을 써서 그 승경(勝景)를 기록하였다.

만세산의 시초 이름은 봉황산(鳳皇山)이었으나, 뒤에 신소(神霄, 天神)가 강림하였고 그 시(詩) 가운데 "간악배공소(艮岳排空霄)"라는 구절이 있어 이 때문에 이름을 고쳐서 간악(艮岳)이라 하였으며 또 산이 나라의 간방(艮方)에 위치하여서이다.

그 가장 높은 한 봉우리는 90보(步)였고 위에는 커다란 정자(亭子)가 있고 동과 남쪽으로 나누어 두 개의 고개가 있으며 곧바로 남산(南山)에 닿았다. 남산의 밖에는 또 작은 산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서 부용성(芙蓉城)이라 하였는데 대단히 그윽하고 아름다웠다. 간악의 북쪽에는 바로 경룡강(景龍江)이라는 강을 팠고 그 강 밖으로 늘어서있는 여러 관사(館舍)는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그 북쪽에는 화재(火災)로 소실된 요화궁(瑤華宮) 터에 큰 연못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서 곡강지(曲江池)라고 하였는데 그 연못은 동쪽으로 넓혀서 봉구문(封丘門)에 다 가서야 그쳤다.

그 서쪽으로는 천파문교(天波門橋)에서부터 들어가서 서쪽으로 곧게 거의 반 리(里)가다가 강은 구부러져서 남쪽으로 꺾였고, 다시 북쪽으로도 꺾였다. 남쪽으로 꺾인 것은 창합문교(閶闔門橋)를 지나면서 이층으로 된 복도(複道)를 만들어서 휘종이 제일 예쁘다고 아꼈던 딸인 무덕제희택(茂德帝姬宅)을 지나가게 하였다. 북쪽으로 꺾인 것은 4리를 뻗쳐서 용덕궁(龍德宮)에 연결되었는데 휘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살던 잠저(潛邸)였다. 그 뒤는 금색(金色)의 지초(芝草)가 만수봉(萬壽峰)에서 자라는데 이름을 바꾸어 수악(壽岳)이라고 하였다.

산의 둘레는 10여리이고, 사방에서 운반하여 온 기이한 꽃과 이상하게 생긴 돌을 그 속에 배치하였는데 1천개의 바위와 1만개의 골짜기에는 미록(麋鹿)이 무리를 이루었고 누관(樓觀)과 대전(臺殿)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맨 마지막에 주면(朱勔, 1075~1126)이 태호(太湖)에서 가져 온 큰 돌이 있는데, 높이와 너비가 몇 장(丈)이었다. 대주(大舟, 큰 배)에 싣고 1천명의 인부가 끌었으며 하천을 파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제언(堤堰)을 헐고 갑문(閘門)을 철거하면서 몇 달이 걸려서야 바야흐로 경사에 도착하였는데 칭호를 하사하여 소공경성신운석(昭功慶成神運石)이라고 하였다. 인공(人工)으로 만 만든 산의 모습이었다.

이를 보고 감탄한 휘종은 강남에서 기화요초와 기암괴석을 운반해 온 주면에게 절도사를 제수하였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속자치통감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뒤로 금(金)의 군사들이 두 번째로 도착하여 성을 포위하였고 그 날짜가 오래되니 집을 부숴서 땔 나무로 삼고 돌을 캐서 포탄으로 삼으며 대나무를 잘라서 비리(篦籬, 울타리)를 만들었으니 오직 큰 돌을 두었던 기지(基址)만 남아있었다.' 그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만들어놓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았다는 말이다. 물론 이를 만든 장본인 휘종은 금(金) 포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갔다.

휘종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는 사람은 당연히 많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 사람도 이에 대하여 간언(諫言)한 사람이 없었겠는가? 하나만 소개하자면 당시에 어사중승이던 진과정(陳過庭)이 목주(睦州, 湖北 長陽縣)에서 도적떼들이 발생하자 말씀을 올렸다. "도적떼들을 끌어들인 사람은 채경(蔡京)이고 도적떼를 기른 사람은 왕보(王黼)이니, 이 두 사람을 귀양 보내면 구적들은 스스로 평정됩니다."

도적떼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재상인 채경과 왕보 같은 간신이 정치를 잘 못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일어나 도적떼가 되었는데, 도적떼를 만들고 기른 사람은 정치를 담당한 채경과 왕보에게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을 제거하면 된다는 말이었다.

또 "주면(朱勔)은 본래 형여(刑餘)의 소인(小人)인데 권력 있고 가까이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왕래하여 명기(名器)를 훔쳤고 죄악(罪惡)이 가득 쌓였으니 의당 전형(典刑)을 밝혀 바로 하여 천하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휘종에게 사치하게 강남에서 기화요초와 기암기석을 실어 나른 주면을 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휘종이 조치한 것은 반대였다. 그를 파직시켜서 지기주(知蘄州)로 하였다가 부임지에 가는 도중에 다시 폄책(貶責)하여 황주(黃州, 湖北省 黃岡市)에 귀양 보내어 안치(安置)시키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한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 귀결은 1126년에 패망이었다. 휘종에게는 160년 전에 2백년간의 분열을 마감하고 통일하고, 또 돈이라면 걱정 없는 떵떵거리고 살도록 해 준 조상(祖上)이 있었고 이를 물려받았건만 등극하여 겨우 20여년 만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외국의 포로가 되었다.

역사는 되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선조로부터 탄탄한 기반을 물려받고 높이 된 사람이라도 자기와 자기 패거리만 생각하며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같고 미래에도 같을 것이다.

전화(戰禍)의 터전에서 70년간 쌓아 올린 현재 한국의 위상은 세계에 대고 큰 소리 칠만하다. 이 업적을 쌓은 우리 선배, 선조들의 고생한 과정을 되새김 없이 이미 쌓아 놓은 것을 나눠먹으려고 패거리 싸움에 여념이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분들에게 송을 멸망시킨 휘종의 이야기를 읽어 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길까?

꿈을 펼쳐가는 권문의 딸 권미송

전통명주 "경산대추약주" 대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각종 자격증과 인증서

경산 우리음식연구회 회장 권미송(복야파 34세)은 경북 청송 진보에서 (고)태휴의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슬하에 2녀를 두고 있으며, 경산의 특산물 대추를 주원료로 전통 약주 "경산대추약주"를 제조하여 경산 특산주로 인증받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송씨가 운영하는 '미송주가'는 경산IC 근처에 위치한 아담하고 청결한 시설에서 생산된 경산의 대표 명주 "경산대추약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컨텐츠 진흥원에서 지정한 경북투어마스터 6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생활 우수체험 장소로도 인정받아 전통주 빗기 및 술상차림을 체험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체험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

권미송 '미송주가'의 대표는 취미 생활로 야생화를 공부하고 산야의 각종 약용식물을 이용한 약주 담그기를 해오다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경산의 특산물 대추를 이용해 보기로 하고 많은 연구 끝에 발효에 관한 특허 받은 기술로 청주와 결합하여 8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경산대추약주"를 탄생시켜 2014년 특허를 받고, 2019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산대추약주"는 2020년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으며,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발효음식 분야에서 '대한민국 한식조리 명인' 인증을 받았고, 술 제조에서 나온 부산물인 술 찌게미를 발효하여 식물의 영양제 및 유기농법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경산대추약주'와 생산되는 대추 막걸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과 효모가 많아 면역력을 증대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노화 예방에도 좋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송주가' 권미송 대표는 "생산 시설을 늘려 명품 약주 '경산대추약주'를 더 많이 생산하고 홍보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것이 작은 꿈이다."라며 활짝 웃었다.

한청타임즈 권성옥 기자 aafa2011@daum.net

2021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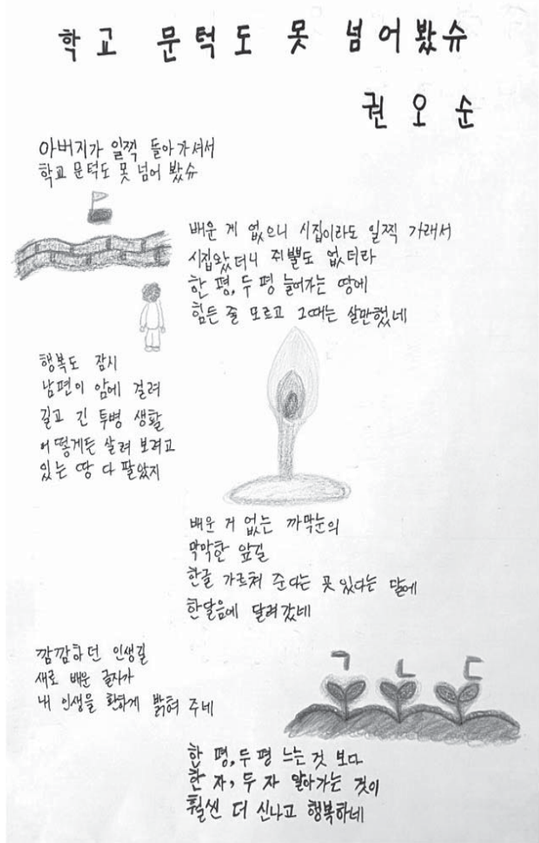
'권오순 우수상 수상'

권오순씨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1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학교 문턱도 못 넘어봤슈'이다. 권오순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여 남매를 낳고 열심히 일하여 땅을 한 평 두 평 넓히면서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암에 걸려 긴 투병 생활을 하는 바람에 병원비 조달하느라 그동안 마련한 땅조차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남편을 허망하게 보내고 남편 없이 살자니 막막했다.

지인의 소개로 충주열린학교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우니 그 배우는 맛이 쏠쏠했다. 손으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직접 한 자 한자 써 내려가니 너무도 행복함을 느껴 그 사연을 시로 작성했다.

권오순씨가 학습한 충주열린학교는 2005년 개교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한글부터 검정고시반, 영어, 컴퓨터 등의 평생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2020년 정기총회 이후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 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